

광주시 혁신·소통·청렴 시정 ‘흔들’

“공공기관 혁신” 외치면서 기관장엔 ‘자질 논란’ 낙하산 인사 현대차 협상 ‘勞 폐상-투자자간 불신’...의회 ‘소통 부재, 경시’ 민간공원 비위·감사실 직원 차량번호판 위조·출장비 유용도

광주시의 3대 시정 방침인 혁신과 소통, 청렴이 민선 7기 출범 6개월 만에 흔들리고 있다.

이음섭(號)가 향해 초반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시장 스스로도 “제도 이탈”을 시인하고 대대적인 조직 정비 의지를 다졌다.

광주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인수위격인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3대 시정 방침을 혁신과 소통, 청렴으로 시정 비전은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로, 시정목표는 ‘정의롭게 풍요로운 광주’로 확정하고 행정 전반에 걸쳐 강력한 리빌딩에 나섰다.

그 결과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생활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라는 호평 속에 속의민주주의형 공론화를 성공리에 마쳤고, 군(軍)공용이전, 광주역·송정역개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등 해묵은 현안들도 속속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거나 모색 중이다. 취임 후 시장 직속으로 광주혁신추진위원회를 두고, 혁신정책관실도 신설하는 등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비위와 자중지란, 비(非) 혁신적 행정이 이뤄지면서 3대 시정 방침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고 시민참여율을 높여 전국적 모범사례라고 자랑해온 민간공원 특례단지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가 외부에 유출되는가 하면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탈락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치열한 법적공방까지 예고되고 있다. 수사 의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음섭 시장이 16일 “음참마속의 심정으로 일벌백계”를, 정종제 행정부시장이 “제 살을 도려내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지만, ‘부실 행정’이라는 오명은 면키 어렵게 됐고, 일몰제 시한인 2020년 7월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지도 의문이다.

“광주에는 시간이 없다”며 공공기관장 혁신을 외치면서도 정작 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에는 자질 논란에 휩싸인 캠프 인사를 내정해 의회의 집단반발을 자초했고 결국 후보자 스스로 불명예 자진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은 민선7기 출범 이후 끊이지 않았고, 이 중 일부는 부적격 시비를 낳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시민결기대회 역

시 혁신과는 거리가 먼 ‘관제대모’라며 진보정당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소통 부재는 고스란히 ‘행정 누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로 기대를 모은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투자사업의 경우 민선 7기 초반 ‘노동계 폐성’ 논란으로 흥역을 치른 데 이어 막판에는 현대차와의 투자자간 신뢰가 무너지면서 7000억원대 합작법인 설립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투자협상 과정에서 광주시는 8월말 매듭, 10월말 골든타임, 11월5일 데드라인, 12월초 예산 국회 전 합의 등 협상 마지노선을 수

차례 옮기기도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해 “성과주의 조급 행정이 낳은 ‘양치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기존 8곳에서 4곳으로 하는 반포탁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시킨 점과 전체 의원 설명회 때와 다른 안건을 제출했다가 상정 자체가 보류된 ‘오라카락 조직개편안’도 소통 부재의 단적인 예로 꼽힌다.

조직개편 방향을 두고는 내부 이견으로 행정부시장이 “행명” “병예 퇴직”을 운운하는 내용도 겪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을 논의한 지 석달 여 만에 혁신도시 공동발

진기금과 복합혁신센터, 나주 999번 시내버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등을 둘러싼 갈등이 노골화된 것도 결국에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청렴 역시 일탈에 발목이 잡혔다. 공직자 청렴을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위원회 직원이 10개월 간 공군부대 차량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무등산국립공원을 30여차례 출입했다가 입건되고, 일부 공무원들은 출장비를 유용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청렴을 무엇보다 강조해온 이 시장이 체면을 구겼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시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도 네 탓 공방”으로 행정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모든게 네 탓”이라는 마음으로 소통과 혁신에 나서고 청렴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 잡을 때”라는 지적이다.

서은홍 기자



산타는 산타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다음커뮤니티 동호회 멀티암벽 처음호, 박경모 대장과 오윤숙 외 12명의 대원들이 ‘산타는 산타’라는 슬로건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합격이 불합격’ 조선대 입시사고...피해학생 구제대책 없어

조선대학교가 수시모집 합격자 명단을 잘못 발표해 78명의 수험생이 불합격 처리된 가운데 피해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 대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대는 16일 “수시모집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돼 사과했지만 현 상황에서 피해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지난 13일 2019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하던 중 전

산상 오류가 발생해 합격자였던 78명의 수험생이 불합격 처리됐다.

학교 측은 곧바로 대책회의 등을 갖고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피해 수험생에게 개별 전화를 걸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피해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대책은 따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모집 정원이 있어 수시모집 인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최중 불합격 처리된 학생은 78명으로 모두 실기전형이 있는 미술대학과 체육대학 등 9개학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정한 수시 모집정원은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12명, 공연예술 무용과 25명이며 미술대학 등은 165명이다.

조선대는 수시모집 명단 정정 사태 이후 입학처 등 관계자들이 모여 수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조인호 기자

여수 거문도 해상서 탱커선과 어선 충돌

16일 여주시 거문도 해상에서 700급 탱커선 S 호와 100급 어선 M 호가 충돌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9분께 여주시 삼산면 거문도 남쪽 14.8km 앞 해상에서 한국선적 탱커선 S 호(74t·승선원 9명)와 사천선적 쌍끌이기선저인망 M 호(13t·승선원 11명)가 충돌했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3척과 해경구조대를 사고해역으로 보내 구조 작업을 벌였다.

M 호는 충돌로 인해 우현 어창에 구멍이 생겨 침수 증이었으나 인근에 있던 어선 3척이 M 호에 계류해 배가 가라앉는 것을 방지했다. M 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전원은 다른 선단선으로 이동하는 등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경 500급 경비함정은 사고 현장에서 어선 3척과 함께 배수펌프 등 방수장비를 동원해 M 호의 배수 작업을 지원했다.

여수해경은 M 호 배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양 선박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화순서 70대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

한밤중에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긴급체포됐다.

화순경찰서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뺑소니) 위반혐의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8분께 화순읍 담터널 입구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영남리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B(77·여)씨를 A씨가 몰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들이 받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B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이날 오전 11시20분께 화순읍 소재 한 교회 앞에서 운전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를 통해 A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는지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수산시장서 현금가방 훔친 50대 달미

전남의 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천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50대 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서는 14일 물품 대금 53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58분께 순천시 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물품 대금 530만원이 들어있는 B씨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가방에 현금을 담은 모습을 본 뒤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을 노려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붙잡았다.

또 훔친 현금 중 12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금액을 찾기 위해 A씨 집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경쟁업자에 불만 품고 벗짚 훼손한 부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경쟁 업체에 앙심을 품고 벗짚 발효시설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52)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1일 오후 8시14분부터 오후 8시50분 사이 광주 서구 덕흥동 일대 농지에 있던 B(45)씨의 곤포사일리지 403개의 진공포장비닐을 문구용 커터칼로 찢어 총 121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경쟁 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장 B씨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최근 벗짚 처리업체 알선사업을 시작했으나, 지역 내 벗짚을 매입·발효해 가축사료를 생산하던 B씨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